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세션 13, 9가지 구원 사역, 필수 결과, 2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다**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9 구원 사역, 필수 결과, 2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심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거룩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오늘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세우고, 영원한 길에서 우리를 격려하는 데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야기책이자 그림책입니다. 그것은 이야기책입니다. 그것은 시작부터, 즉 창조, 반역 또는 타락을 거쳐, 그리고 구원, 즉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그리고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진정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스토리라인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연구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의 9가지 구원 행위나 사역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한 일의 핵심과 영혼은 신약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성경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으며, 성경에 따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즉, 그의 죽음과 부활은 구원의 심장 박동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신은 그것들을 예수 이야기의 일부로 맥락화합니다. 따라서 성육신은 십자가와 빈 무덤에 대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성 안셀름이 이미 보았듯이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죄 없는 삶은 필수적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다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경건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는 스스로 구세주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죄를 짓지 않았고, 따라서 그의 성육신과 죄 없음은 그의 죽음과 부활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중심, 핵심, 심장 박동, 구원의 본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저는 다시 형용사를 찾고 있습니다. 기념비적이고 너무 약해서 놀라운 결과나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에서 다섯 가지 결과가 따르고,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승천을 보았는데, 승천은 예수님을 비천한 상태에서 제한된 지상 영역에서 더 높은 초월적인 천상 영역으로 승천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 찬송가 작가가 말했듯이 영광 속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습니다. 오, 그는 결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류 중 하나인 신인(God-man)이 하나님 의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선구자이며,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의 행렬을 따를 것이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의 세션은 또한 그의 구원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것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필립 에지-카위가 히브리서에 대한 훌륭한 주석을 쓴 것을 들어보세요. 오래전에 쓰여졌지만, 복음주의자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과는 달리 성경 해석의 역사에 큰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여전히 독특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해석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는 그것을 매우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휴즈를 인용하여, 그는 죄를 위한 정화를 했습니다(히브리서 1-3장). 아퀴나스가 말했듯이, 그는 인간 역사의 과정에서, 인간이 자신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만족시키기 위해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제물로 바쳤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속죄 교리의 형벌 대속 이론입니다. 이것을 행한 후, 그는 높은 곳에 있는 위엄의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앉아 있다는 설명은 그의 정화의 사역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는 그의 위치는 그가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이며, 그가 단순히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있으며, 그가 그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더욱이 그의 세션,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는 것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시작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것으로 계속된 그의 승천은 그의 세션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은 그의 정화 작업에 대한 신성한 수용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려오셨던 높이로 다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그는 지금 최고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아름다운 인용문이 필요할 때 존 스토틀, 필립 휴즈, FF 브루스에게 갑니다.

정통파이지만 아름답기도 하다. 내가 언급한 다른 정통파 주석가들은 그렇게 쓰지 않는다. 예수의 사역은 하강, 상승, 하강이라는 세 가지 위대한 움직임으로 보아야 한다.

그는 성육신으로 내려오셨고, 영원한 신의 아들은 나사렛 예수 안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지상에서 33년 반을 보낸 후, 그 중 마지막 3년은 지상 사역에 참여했고, 올리브 산에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의 재림 때, 그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세션은 신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며, 상승의 중심 운동, 즉 그의

승천의 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 땅에서 하늘로의 한 운동으로,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시작됩니다.

예수의 세션은 구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많이 듣지 못할 테지만, 지루할 정도로 반복해서 말하겠지만, 두 가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그 자체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필수적입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빈 무덤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는 것은 십자가와 빈 무덤이며, 이러한 필수적인 결과들은 그 자체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형과 부활의 필수적인 결과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예수님의 세션은 구원합니다. 그는 우주에서 가장 큰 영예와 권위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 있는 아버지께로 승천하신 후 앉으셨습니다. 그는 지상 사역에서처럼 걸으시지 않았고, 십자가에서처럼 팔을 뻗지 않으셨고,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옮겨지실 때 제사장의 축복으로 손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부활과 승천에서 시작된 승천을 완성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그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세션은 우리가 이전에 탐구했던 그의 삼중적 직분에 관한 그의 구원 사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역사가 에우세비우스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을 보았고, 그다음 개혁가 존 칼빈이 훌륭하게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왕으로 앉으셨습니다. 저는 성경이 이 세 가지 직책에 부여한 중요성의 순서대로 거꾸로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왕, 선지자, 제사장 중 어느 직책이 그의 회기에서 더 중요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절 설교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세션을 그의 대관식, 즉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공식적으로 임명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2:23~36. 언약의 백성은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높이심으로써 예수에 대한 평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위치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에 엄청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에베소서 1:19~23.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면, 그들은 그의 구원 사건, 즉 그의 세션에 참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에베소서 2:6은 우리가 그와 함께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그와 함께 앉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십니다.

죄를 지어도 안전할까? 아니요, 죄를 지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를 찬양하고, 그를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를 섬기는 것은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세션은 그의 세 가지 메시아적 직분 모두에 해당하지만, 특히 그의 왕직에 해당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오른편, 곧 최고의 존귀와 통치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1, 2. 예수님의 세션은 그의 승리의 승영의 정점을 표시합니다. 예수께서는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땅에서 그랬던 것처럼, 굴욕을 당한 자로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높은 곳에서 통치하십니다.

하지만, 그가 두 번째 오실 때 겉으로 공개적으로 통치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것은 통치, 통치, 지배를 나타냅니다. 고소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말한 후, 저는 왕의 직분에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고소할 사람에 대해 말한 후에, 그 의미는 그것을 고착시키는 것입니다. 고소, 정죄, 의롭다 하심에 대해 말한 후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언급은 형벌 대속의 법적 개념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보존하시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맥락에서, 일반적으로 영원한 안전이라고 불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에서 바울은 다른 것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을 고소할 것인가?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수사적 질문입니다.

누가 가져오든 상관없습니다. 사탄, 악마, 인간적 적대자들, 그들은 서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건은 최후의 판사, 대법원의 대법원, 말하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죄를 잘 아시고, 우리의 적들과 우리 자신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안에서 그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여 고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저는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꽤 많이 공부한 심판 구절에서 절반은 아버지가 재판관이고 절반은 아들이 재판관입니다.

그는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했지만, 그의 백성을 정죄하지는 않았다.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 분이다. 그것은 사실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도 사실이지만, 그는 우리를 정죄하러 오지 않는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셨고, 여기가 우리의 진짜 요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고, 실제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방금 읽은 구절에서 고소, 정죄, 의롭다 함을 가져온다고 말한 후,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하고, 그 고소를 처리하고, 그 정죄를 제거하기 위해 형벌 대속이라는 법적 개념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염두에 두고 있는 메시아적 직분이 사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의 사제적 중재에 대한 언급으로 확인됩니다. 우리의 사제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살면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므로 우리에게 최후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따라서 그의 사제 세션은 그의 구원 사역이 완료되었다는 확신을 그의 백성에게 가져다줍니다. 그가 앉았던 곳 때문에 끝났습니다. 앞서 인용문에서 보여주셨듯이, 그의 사역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을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경건하게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아들의 의로움, 그리고 그의 속죄의 적절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일이 다 끝났고, 완전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임을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1:3에 있는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말씀은, 죄를 정결케 하신 후에, 높은 위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제가 말한 세 가지 요점, 즉 아들의 제사장적 희생의 최종성, 완전성, 효능, 효과를 시사합니다.

이러한 속성은 저자가 그리스도와 그의 희생적 죽음이 구약 제사장들과 그들의 희생에 비해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줄 때 히브리서에서 나중에 명확히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10:11-14, 구약 제사장들은 그들의 봉사에서 결코 앉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제물을 바치셨을 때, 저는 히브리서 10:12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바치셨을 때,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닫기 인용. 그것이 그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그의 세션입니다.

이것은 그의 제사장적 사역이 완전하고, 완벽하며, 전적으로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인용하자면, 그는 한 번의 제물로 거룩하게 되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고 막연히 바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아들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대표자이자 하나님의 첫 열매로 부활하여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보장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 앉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온전히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성취의 경외감을 나타내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제사장보다도 달리 지상 제사장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의 천상의 현존으로 영원히 가져가셨습니다.

히브리서 8:1-8,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름답게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위엄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로마서 8-1.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분으로, 하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의 세션은 그의 왕직 과 제사장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를 구해주었고, 예수는 선지자로서 앉으셨습니다. 예수는 대제사장이 맹세를 하게 하고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물었을 때 선지자로서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26:63). 예수는 대답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인자가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마태복음 26:64). 그때 그들은 그를 신성모독죄로 고소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를 곤경에 빠뜨린 것은 그의 세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과 죽음의 승천에서 개인적으로 성취하고 아버지와 세션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 말씀과 함께 부활하신 예언자 예수는 자신의 임재와 재림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요엘의 예언을 성취하시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33, 요엘 2:28-32.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하늘의 선지자, 즉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구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는 하늘의 선지자로 행동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1장에서 아들 선지자가 구약의 특별 계시의 중재자, 선지자, 천사보다 우월함을 확언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히브리서 1:2). 이 맥락에서 저자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자 그의 본성의 정확한 각인이라고 부르며, 그를 계시자로 묘사합니다. 광선이 태양의 영광을 드러내고 동전이 그 물감의 각인을 드러내듯이, 성육신하신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요점은, 오브라이언이 설명하듯이, 인용하자면, 아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현현이 될 수 있는 독특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 구원 사역의 본질적인 결과 중 하나는 그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탁월한 존재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또 다른 구원의 결과는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들보다 신학적으로 보여주기 어려운데, 성경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을 설명하고 주지만, 서신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순절에 성취된 구약의 유형론과 여러분이 전에 들어보지 못했을 수 있는 초자연적 현상에 특히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지만, 항상 그렇듯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시험해 보세요. 저는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중보자는 새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알겠어요? 구약성서는 새 언약을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으로 그것을 비준하셨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그는 죽음으로 그것을 비준했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봄! 주님의 만찬 제도를 목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열두 명, 결국 열한 명이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수천 명씩 모였습니다. 카봄!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돌풍이 불었습니다.

현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분산에서 그들이 어디에서 왔든, 그들은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점에서 그는 예를 들어 바벨을 뒤집습니다. 오순절에 중재자는 공개적으로 새 언약을 선포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에서 공통점은 예수입니다.

오순절은 그의 일이고, 그것은 공적인 거래입니다. 그것은 공적인 계시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공개적으로 새 창조를 시작합니다.

돌풍은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약성서는 이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것은 제 나름의 신학적 방법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첫째, 알겠죠? 그것이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을 막지는 않지만, 저는 본문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과 제가 실제로 이 경우 성경 이야기, 구약성서의 선례와 유형, 신약성서의 현현과 반유형에 근거하여 구성한 것을 구별합니다.

오순절에 중보자는 공개적으로 새 언약을 선포하고, 공개적으로 새 창조를 시작하고, 공개적으로 새 공동체에 영을 부여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 중에서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것입니다.

첫째, 오순절에 중보자는 새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중보자와 함께 일하셨습니다.

분명히 모세는 옛 언약의 중재자였습니다. 누가 산에서 율법을 내려왔을까요? 두 번,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보다는 내 목숨을 빼앗으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러가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끝났다. 나는 모세 사람들과 함께 시작할 것이다 .

아니, 모세가 말했다. 얼마나 목사인가. 바울처럼.

바울은 지옥에 갔을 겁니다. 로마서, 저는 항상 잊습니다. 9장이나 10장 초반에, 그는 자신의 마음으로 고통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옳은 것 같습니다.

9입니다. 저는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저주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제 형제들, 육신에 따른 제 친척들을 위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오, 그는 그의 백성을 사랑했어. 모세는 그의 백성을 사랑했어.

주님, 그러지 마세요. 제프를 쓸 거면 제프를 싸주세요. 오, 제 말씀이에요.

모세인 으로 바꾸고 싶은 유혹을 받을까요 ? 꽤 인상적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그는 맹세와 피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완고하고 고집 센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놀랍네요. 다윗은 분명 언약의 중재자죠? 오, 하지만 궁극적인 언약의 중재자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야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격 안에 있는 예수, 신, 인간입니다. 히브리서 9:15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12:24, 당신은 두렵고 두려웠으며 사람들이 떨던 옛 시온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못하게 하세요, 모세 .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영적인 시온 산, 새 언약과 뿌려진 피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왔습니다. 히브리서 12:24.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마지막 날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목사님과 제가 쓴 작은 책인 예언 속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삶이 성경적 예언을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이 책에서 우리의 목표는 구도자와 새로운 기독교인 청중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의 삶,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 약속된 재림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지, 각 지점마다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그 책을 공유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람들이 예언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방법.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마지막 날을 인도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죽음과 부활로 새 언약을 비준하십니다. 이 언약은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면서 십자가에서 비준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용하자면, 너희를 위해 부어지는 이 잔은 내 피로 된 새 언약이다.

인용문 닫기, 누가복음 22:20.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언약을 언급했습니다. 누가복음과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실제로 새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같은 것을 의미하지만, 누가와 바울은 실제로 그 말을 그대로 말합니다. 새 언약은 예수의 피 속에 있는데, 그의 죽음이 언약을 비준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용서를 예레미야 31:31-34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의 예언 중 하나로 연결합니다. 마태는 용서를 피의 잔과 연결하고, 그는 잔을 들고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쏟아지는 언약의 내 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27~28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용서는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매우 명백합니다.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는 말씀하셨고, 그가 그렇게 보여지죠, 맞죠? 두 번째, 그는 주님의 만찬을 제정하실 때 자신의 죽음이 그 언약을 비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명확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과 관련하여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새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의 죽음이 그것을 비준합니다.

이제 오순절은 다른 것들 중에서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립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그 주 전체와 그 이후에 거기에서 믿은 유대인들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일부였고, 이제 그들은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음과 부활로 새 언약을 비준하는 데 필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소식은 그의 부활 후 50일 만에 방송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는 오순절에 그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이를 행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오순절에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네 복음서 모두, 나는 물로 세례를 주노라, 너희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시니,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시니라.

네 복음서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다시 이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다시 이것을 말했다고 상기시켜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관성은 정말 훌륭해요. 정말 명확하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의 예언을 상기시키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여러분은 며칠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예요.

그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새 언약이 시작될 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네 후손에게 내 복을 부어주리라. 그리고 그 후에 요엘이 기록한 대로, 나는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나는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요엘 2:28-29. 에스겔 36:27,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율례대로 행하게 하며 내 규례를 주의하여 지키게 하리라. 에스겔 36:27, 에스겔 39

:29와 비교하라.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께서는 오순절에 세레 요한의 예언과 함께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것은 오직 그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가능했으며, 이는 새 언약을 확증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공개적인 사건으로 알리기로 계획하셨고, 오순절이 그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그의 놀라운 책에서 인용한 신클레어 퍼거슨은 성령 신학에 대한 인용문에서 제가 아는 가장 훌륭한 책인데, 오순절은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전환을 공개적으로 표시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은 예수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바벨탑의 구약성경 유형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온 지구가 하나의 언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신을 잊고 스스로 천국에 오르려 했을 때, 신은 분노하여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서로 알아들을 수 없게 했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윌리엄스의 *Far as the Cursed is Found*에서 구속의 언약 이야기는 바벨과 오순절을 유익하게 대조합니다. 바벨에서 인간은 혼란스럽고 무지했습니다. 더 이상 공통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인류는 제국의 멀리 떨어진 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듣고 놀랐고 지식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바벨에서 사람들이 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탑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려고 하기보다는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가는 오순절에 대한 그의 기록에서 민족들의 표를 언급합니다(행 2:8-12). 바벨 이야기가 민족들의 표를 따른 것처럼 말입니다(창 10:1-32).

바벨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오셔서 여러 민족과 언어로 나라들을 흠으셨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은 새로운 부족인 교회를 축복하시고 흠으셔서 많은 민족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오순절은 새 언약의 선포였습니다. 성경은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과 대조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자체는 시내산에서 주신 구약과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 사이의 유사점을 확립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2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것, 곧 타오르는 불과 어둠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듣는 자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고 간청하는 음성에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명령받은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용하자면, 짐승이라도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광경은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모세는 “나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 산,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 축제를 벌이고 있는 곳과 하늘에 등록된 만아들의 모임과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로운 자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말씀을 하는 뿌려진 피에게 왔습니다.

히브리서 12:18-24. 시내산과 계명을 주는 것에 대한 이 묘사에서 저자는 그것을 영적 시온산, 하나님, 천사들, 하늘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와 대조합니다. 옛 언약은 떨림과 두려움과 연관되고, 새 언약은 축하와 기쁨과 연관됩니다.

물론, 이 대조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많은 기쁨이 있습니다. 시편 100편과 비교해보세요.

하지만 구약의 기쁨은 하나님의 신약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새 언약을 새롭게 만드는 것은 중보자 예수님입니다.

신클레어 퍼거슨은 시나이와 오순절의 대조를 요약합니다. 인용문, 시나이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불과 바람, 그리고 신성한 혀를 동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은 떨어졌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랐습니다. 그가 내려왔을 때, 그는 십계명, 즉 하나님의 법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얼마 전에 승천하셨습니다.

오순절에 그는 말하자면, 점토판에 기록된 율법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영을 가지고 내려오지만, 영의 은사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그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셔서, 그들이 율법의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장, 34장, 로마서 8:3, 4장, 고린도후서 3:7~11을 비교해 보십시오.

인용문 닫기. 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훼가 시나이 산에 내려오심 , 출애굽기 19, 20.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내려와 총만하게 하는 영을 베푸십니다(행 2:3, 4). 인용문, 모세가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듯이(출 24:16, 18),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그 임재를 경험합니다. 인용문 닫기. 분명히, 광각 렌즈로 볼 때, 오순절에 예수께서 방송하신 새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져온 모세의 구약성경을 대체합니다.

오순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새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새 창조를 공개적으로 시작하십니다. 새 창조는 마지막에야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저는 제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걸쳐 힘들게 얻은 결론인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결론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에는 기복이 있고, 교사들과 그들이 저에게 미친 영향, 그리고 그들의 지나친 독단주의 때문에 성경 예언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주님의 재림을 사랑하고, 지금은 성경 예언을 사랑하고, 제 주장은 마지막 일의 모든 주요 측면이 이미와 아직 모두이며,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더 크고 최종적인 방식으로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결국에야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65:17, 66:22).

예수께서는 문자 그대로 재생인 새로운 세상을 예언하셨는데, 인자가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믿는 자들은 영생을 상속받을 것입니다(마태복음 19:28). 바울은 창조물들이 부패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믿는 자들이 몸의 구속을 경험할 때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로마서 8:21-23). 베드로는 의가 거하는 새 하늘 과 새 땅을 기대합니다(베드로후서 3:13).

마지막으로, 요한은 이 많은 기대의 성취를 봅니다. 인용문, 나는 새 하늘, 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사라졌습니다. 계시록 21:1. 이때, 인용문, 죽음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애통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전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성경은 분명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현현은 여전히 미래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가 지나치게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유죄이며, 그것은 바보의 금을 가져옵니다. 아니요, 지금은 상황이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영광스럽고,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고, 그것은 훌륭하고, 주님을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우리는 엉망이고, 세상은 엉망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님이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기를 기다립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새 창조물이 왔지만, 여러분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충만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현현은 여전히 미래이지만, 다른 모든 종말론적 주제와 마찬가지로 새 창조는 이미 있고 아직 아닙니다.

얼마 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 저였습니다. 예수님은 콜로새서 1장에서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물 위에 탁월한 존재, 즉 창조물 위에 군림하심을 보여 주셨는데, 그분은 창조물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교회의 몸의 머리라고 말하고, 바울은 자신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작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말을 건너뛸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다른 단어들은 그 주변에서 꽤 명확하지만, 그는 시작입니다. 글썄요, 그게 무슨 일인가요? 당신이 그 수업을 물어봐서 다행입니다.

바울이 예수가 시작이라고 말할 때 그는 창세기 1:1을 언급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물 위에 군주이십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그는 창조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회 위에 군주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재창조의 일부이고, 교회가 그의 재창조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바울이 방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그에 의해, 그를 위해 창조되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시작이며 의미는 새 창조의 의미라고 말합니다. 그는 교회의 생명의 근원이며, 구체적으로는 죽음에서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그는 새 창조물이며, 죽음에서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태어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조된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그는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합니다.

시편 89:27, 나는 결국 그를 미래의 다윗 왕, 주 예수로 만들 것이다. 나는 그를 내 맏아들,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 것이다. 글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는 왕으로서의 그의 세션의 미덕으로 지금 통치하고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온 지구를 다스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천년 왕국의 서곡에서, 저는 천년 왕국 이전의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지만, 모든 신자들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그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왕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거둬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그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거둬남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적인 기적입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사실 그것은 다가올 시대에 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이 시대로 들어오셔서 믿는 자들이 필멸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로마서 8장).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뿐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공개적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썼습니다. 20절에서, 모든 것에는 제가 어제 이전 강의에서 주장했듯이, 천사가 인간과 하늘과 땅을 구원한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천사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16절에서 보여지는데, 이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즉 왕좌, 주권, 통치자, 권세 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천사들을 복종시켜 그의 평화로운 왕국을 유지함으로써 화해시키십니다. 골로새서 2:15와 비교해보세요. 인간이 화해된다는 것은 골로새서 1:20에 이어지는 두 구절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에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마음으로 원수되어 악한 일을 행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죽음으로 그의 육신 안에서 화해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화해되었다는 것은 16절과 20절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16절, 그리고 20절, 하나님은 그를 통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자신에게 화해시키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화해시키셨듯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실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화해시키셨고, 모든 창조된 현실을 화해시키셨습니다.

Doug Moo의 콜로새서 1:20에 대한 의견은 정확합니다. 인용문,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죄로 더럽혀진 온 우주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로마서 8:19-22. 이 강의의 맨 마지막에, 저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요약할 것입니다.

확실히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특히 그의 죽음과 부활은 그의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적들을 파괴하고, 패배시키고, 정죄하기 위해 우리의 적들을 향해 있습니다.

가장 심오하게, 그것은 화해, 화해, 그리고 하늘 자체의 정화에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향해 지향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놀라운 개념이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이 개인과 교회를 향해 지향된다는 사실에서 그것은 또한 창조물을 향해 지향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사실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디어는 거기에 있습니다. 새로워진 창조물,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로새서 1장은 그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화해시켰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너무나 기념비적이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적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하늘과 땅을 구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구세주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지금 두 시간만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리자.

실제로 적절할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언급했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보편주의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한다면 바울의 언어를 왜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구세주는 영원한 지옥을 포함한 영원한 운명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악한 자, 염소들,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영원한 형벌로 갈 것이지만,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갈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는 마지막에야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새 창조를 시작하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필멸의 몸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순절에 새 창조를 공개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새 창조는 예수님의 재림 때만 완전히 드러나겠지만, 그는 죽고 부활하셨을 때 새 창조를 시작하셨지만, 그때는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공적 현현은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20장에서 찾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21-23에서 예수께서 행하신 예언은 창세기 2:7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쌍한 호세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과 간통에 기울어진 여자와의 결혼은 이스라엘의 방탕함과 그녀의 남편인 주님에 대한 영적 간통을 보여주는 예언적 일련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그건 힘든 예언적 행동이었습니다. 어머, 사람들이 자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언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원하지 않았어요, 에이모스; 저는 예언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제 일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쌍한 예레미야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은 대부분 충실했고, 때로는 요나처럼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심지어 마지못해 요나조차도 다가올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을 행동으로 옮겼지만, 그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21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예언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쓰고, 인용하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20:22,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음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피조물, 곧 네페쉬 하야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7).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신성한 호흡의 행위로 인간 피조물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창조자께서는 예언적 행위로 제자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순절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2장 2절의 바람은 창세기 1장 2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순절의 소리는 또 다른 구약성경과의 연관성을 지적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 소리가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도행전 2:1, 2.

퍼거슨은 “강풍이 불어오는 듯한 소리는 루아흐의 강력한 작용에 대한 이미지를 반영한다”고 언급합니다 . elohim , 신의 영, 창조, 창세기 1:2, 곧 일어날 사건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을 암시, 인용문 닫기. 히브리어 단어 중 하나가 숨, 바람, 영을 의미하고, 그리스어 단어 pneuma에도 같은 의미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누가가 집을 가득 채운 강력한 돌풍에 대해 언급할 때, 그는 기름부음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부어주신 강력한 신의 영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의 바람은 창세기 1장 2절의 하나님의 영을 떠올리게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데니스 존슨은 많은 책을 쓰지 않았지만, 좋은 책들이 있고, 그는 *The Message of Acts in the History of Redemption*이라는 훌륭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고 사려 깊습니다. 저는 그를 칭찬하는 것을 멈추겠지만, 그의 학생들은 그의 가르침과 삶을 칭찬할 뿐입니다.

데니스 존슨은 바람 소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영의 도래를 알렸다고 말하며 잘 대답합니다. 바람은 새로운 인류에게 불어넣어진 하나님의 숨결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새로운 창조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다시 한번, 존슨, 데니스 존슨을 인용하자면, 지금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고통과 죽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우주적 엔트로피의 역전은 예수의 부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의 증거에서 싹트는 예수의 이름에 대한 믿음은 모든 것의 회복이 자랄 씨앗이며, 이는 밀접한 인용문입니다.

아직 새 하늘과 새 땅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새 창조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오순절에 영을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보내어 공개적으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아멘.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오순절을 예수님의 일로 마무리하고, 오순절에 예수께서 어떻게 새 공동체에 영을 공개적으로 주셨는지 생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3, 9 구원 사역, 필수 결과, 2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다입니다.